

연구보고서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2014. 11

# ||| 목 차 |||

## I. 중소기업 금융 현황 / 1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특성 / 1
2.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환경 / 3

## II.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점 / 9

## III. 주요국 중소기업 금융 현황 / 14

1. 독일 / 14
2. 일본 / 16
3. 미국 / 19

## IV.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 22

1.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22
2.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 24
3. 직접금융의 접근성 제고 / 25
4. 동산담보대출제도 활성화 / 28

# I. 중소기업 금융 현황

##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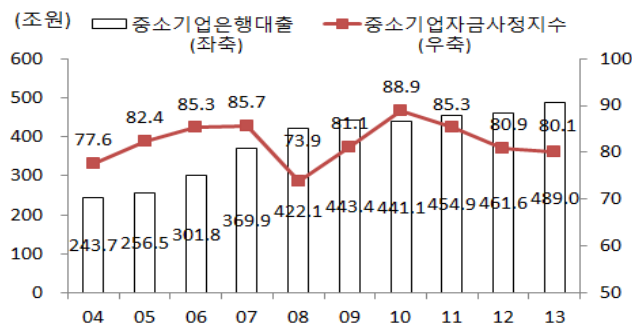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자금사정은 악화

○ 지난 10년('04년~'13년)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4년 243.7조원에서 2013년 489조원으로 확대

- 그러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2010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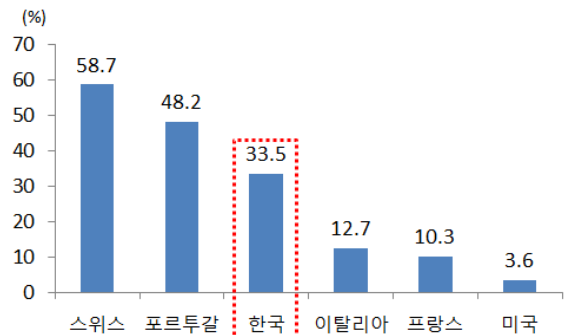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은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OECD 평균 15.6%)

〈그림〉 중소기업 은행대출잔액 및 자금사정지수



\* 출처 : 금감원, 한국은행

〈그림〉 주요국 GDP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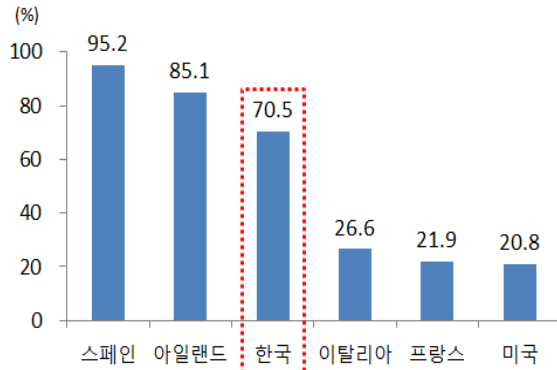
\* 출처 : OECD(12년 기준)

□ 국내금융기관은 단기자금과 운전자금 위주로 중소기업 대출

○ 중소기업 대출금액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자금 비중이 70.5%로 OECD 1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편(OECD 평균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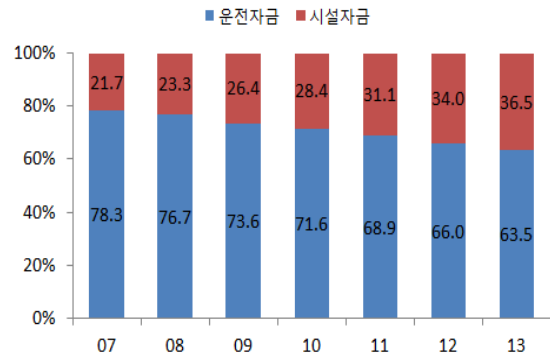
○ 또한 운전자금 비중이 63.5%로 시설자금 비중(36.5%)보다 높은 편

〈그림3〉 주요국 중소기업 단기대출비중



\*주: 한국금융위(13년 기준), 주요국 OECD(12년 기준)

〈그림4〉 중기대출 자금형태별 비중



\* 출처 : 한국은행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할 경우 높은 대출 금리가 가장 큰 애로사항

○ 대한상의 조사결과<sup>1)</sup>, 금융기관에서 자금차입시 주요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38.3%)로 나타났으며, '담보 및 보증 요구(29.2%)', '까다로운 대출심사(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 금융기관 대출시 주요 애로사항

구 분	높은 대출금리	담보 및 보증 요구	까다로운 대출심사	부족한 대출한도	예금 등 가입 요구	기타
비중(%)	38.3	29.2	15.8	7.5	4.0	4.0

□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거래하고 있으나 자금 대출 이외 받는 서비스가 거의 없음

○ 대한상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99.0%가 주거래은행이 있으며 이중 78.5%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적이 없음.

○ 또한 74.1%가 10년 초과 장기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중소기업 300개사 조사(2014.9.12-19)

〈표2〉 주거래은행과 거래기간

구 분	2년 이하	3-5년	6-10년	10년 초과
전체 (%)	3.3	6.4	16.2	74.1

- 하지만 주거래은행에서 자금대출 이외 받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편

〈표3〉 주거래은행에서 자금대출 이외 받는 서비스

구 분	경영	회계/세무	법률	없다
전체 (%)	2.7	1.0	1.0	95.3

- 중소기업은 낮은 금리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음

- 대한상의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54.2%가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 '낮은 금리(84.0%)', '신용지원 등 좋은 담보조건(6.6%)' 등의 순으로 응답

〈표4〉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

구 분	낮은 금리	신용지원 등 좋은 담보조건	기술 및 사업성 위주의 기업심사	긴 대출기간
전체 (%)	84.0	6.6	6.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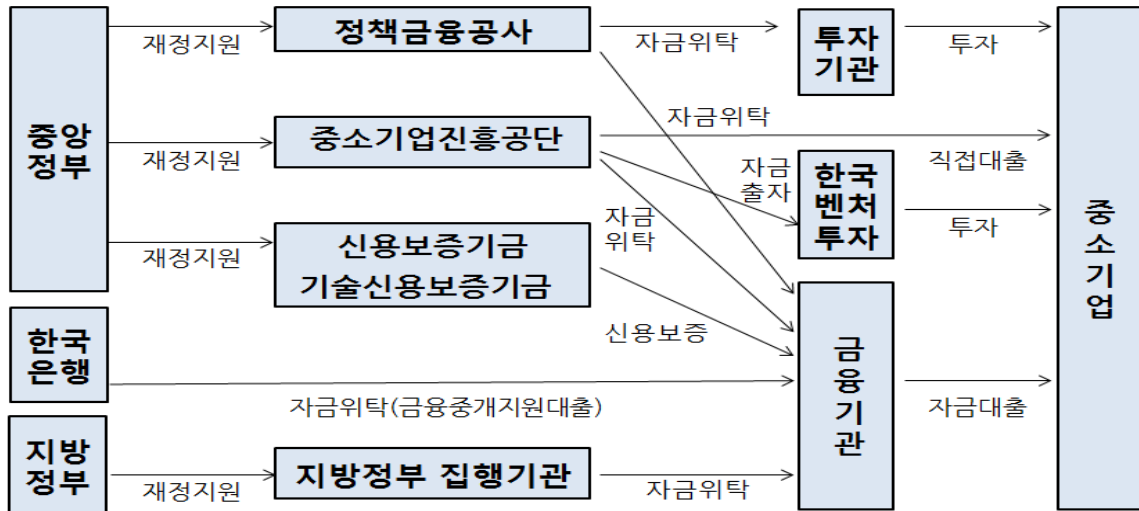
## 2.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환경

### (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정부정책자금, 신용보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으로 구성

- 그 외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간접적 지원 제도를 통해 원활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환경 조성

〈그림5〉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 정책금융지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융자,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융자지원방식의 정책자금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원주체가 다양
  -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표5〉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책자금	29,287	59,515	34,184	34,015	36,508	48,929

출처 : 중소기업청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 정책자금의 약 80%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으로 공급
  - \* 정책금융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
- 출자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이 모태펀드(fund of fund)에 자금을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창업투자조합에 재출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
  -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정부출자액이나 펀드결성액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 투자금액도 증가하는 추세

〈표6〉 모태펀드 약정 및 조합결성금액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규조합수	모태펀드 약정금액	조합결성금액
2010년 출자조합	32	1,930	9,481
2011년 출자조합	40	2,808	16,524
2012년 출자조합	25	2,143	6,005
2013년 출자조합	38	4,230	13,217

출처 : 중소기업청

〈표7〉 벤처펀드 투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금액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출처 :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제도는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상환을 보장
- 상환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
  - 2013년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75.5조원 규모로 2009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표8〉 신용보증 지원규모(잔액)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보	30.4	39.2	38.8	38.4	39.3	40.6
기보	12.6	17.1	17.4	17.0	17.7	18.9
지역신보	6.0	11.4	14.3	14.5	14.3	16.0
전체	49.0	67.7	70.5	69.9	71.3	75.5

출처 : 중소기업청

- 금융중개지원대출(전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대출 총액을 미리 정해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여 저리로 공급하고 은행은 이러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출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
  - 경기변동에 따라 총한도가 탄력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표9〉 금융중개지원대출지원규모

(단위 : 조원)

배 정 월	07.7	08.11	09.3	10.7	11.1	12.9	13.4	14.9
총 한 도	6.5	9.0	10.0	8.5	7.5	9.0	12.0	15.0

출처 : 한국은행

## (2)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

- 정부는 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



○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12.5월 시행)

- 연대보증 폐지 후 법인 평균보증인수 감소

\* 은행 : 1.17명(12.4) → 1.04명('13.1) / 신기보 : 1.58명(12.4) → 1.16명('13.1)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13.7월 시행)

□ 신용대출이나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12.6월 시행)

○ 은행권은 제도시행 이후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

〈표10〉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월평균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2.3Q	12.4Q	13.1Q	13.2Q	13.3Q	13.4Q	14.1Q	14.2Q	14.7
대출 금액	1,067	463	330	449	398	580	286	179	157

출처 : 금감원

□ 최근 정부는 금융권의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sup>2)</sup> 활성화를 위해 노력

○ 관계형 금융의 추진을 두고 정부와 금융권 사이에 쟁점 발생<sup>3)</sup>

- 지분투자 활성화, 대출구조 장기화, 주거래은행제도 도입 등을 두고 제도화하려는 정부와 업계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금융권간 입장이 상이

2)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한 금융기법을 말한다. 자금지원 이외 법률, 교육, 컨설팅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단기경영애로의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

3) 서경란,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모델수립을 위한 해외 관계금융 사례연구, 중소기업연구, 2014.9 참고

- 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저축은행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14.9)
  - 기본역량 강화,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 유대관계 구축,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업계의 자율 추진 유도
  - 점포 설치 규제 완화, 충당금적립 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
- 은행권도 특성에 맞게 관계형 금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노력
  - 은행별로 관계형 금융 전담조직 구성, 운영위원회 발족, 비재무 정보 관련 평가지표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4)
  -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관계형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시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부담 완화 및 금리 우대를 해주고 회계,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5)

---

4) 매일경제 2014.10.2일자 기사 참고

5) 광남일보 2014.9.29일자 기사 참고

## 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점

### □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

####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에 편중

- 대한상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92.3%가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직접금융 1%, 내부자금 6.7%로 나타남

〈표11〉 자금조달 경로

구 분	은행	비은행	정책자금	주식, 회사채	사내자금
비중(%)	90.0	1.3	1.0	1.0	6.7

-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비용 부담이 큰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낮은 편

〈표12〉 기업규모별 재무구조(제조업)

(단위 :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9	49.8	37.2	100.8	168.7	20.4	36.3
2010	52.3	37.0	91.3	170.2	20.2	35.9
2011	51.9	36.9	92.6	171.0	21.5	35.8
2012	53.9	37.7	85.5	165.6	21.9	36.5
2013	56.3	38.6	77.5	159.1	20.3	36.6

출처 : 한국은행

-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경기변동이나 은행의 수익성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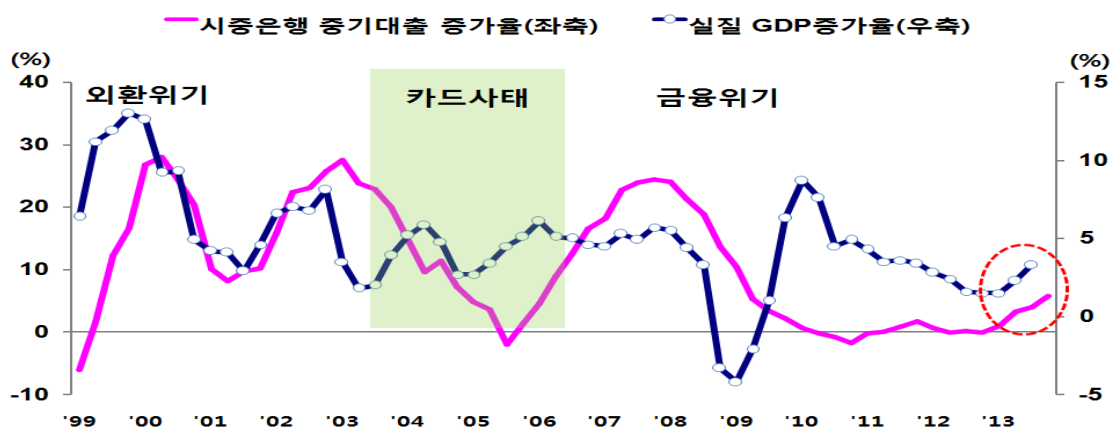
□ 은행의 담보대출 선호 및 신용평가 능력의 한계

- 담보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증가세
  - 부동산 담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산 담보는 미미한 수준
- 이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가운데 정보생산에 기초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
  - 특히 전체 중소기업의 약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다수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시접촉 등을 통해 획득하는 비재무적 정보가 중요하나 은행입장에서는 정보생산 비용이 큼

□ 은행의 과도한 경기 순응성 및 위험 회피

- 은행은 불경기에 대출을 줄이고 호경기에 대출을 늘리는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행태를 보이는 경향
  - 중소기업 영위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데다 은행 역시 경기순응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호경기에 자금이 과잉공급

〈그림6〉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동향



출처 : 금융위원회

\* 대한상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5.4%가 불황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선과제로 41.0%가 불황시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축소의 자제로 응답

○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도가 높은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부실화 위험을 대출기간, 금리 등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단기화하려는 경향

-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출현을 저해

#### □ 정책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편

- 이는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기능이 취약함을 반영

\* GDP대비 정책금융 비중 : 일본 12.1%, 한국 7.3%, 독일 1%, 미국 0.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

\* 대한상의 조사결과, 정책자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4.2%를 차지했으며, 29.7%가 정책금융 확대'를 향후 정책 개선과제로 꼽음

#### □ 지역밀착형 · 관계형 금융 취약

○ 중소기업의 52%('12년)가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하여 지역금융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밀착적 특성은 취약

- 외환위기 후 지역금융기관은 대형화, 글로벌화, 겸업화의 큰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
- 주로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예금을 수취하고 있는 지역·서민금융기관은 예금을 해당지역 대출로 중개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환류<sup>6)</sup>하는 등 자금중개역할이 미흡한 실정

○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나 담보력 등이 취약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거래기반대출보다 관계형 금융이 더 적합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거래기반대출은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재무상태,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방식

\* 관계형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

- 관계형 금융의 경우 단기간에는 고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 동산담보대출의 비활성화

○ 2012년 도입된 동산담보 대출실적은 대체로 저조한 가운데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

- 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다른 대출 이용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

---

6) 울산은 201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68조3979억원으로 전국의 5.5%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6188만400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점포수(2012년 기준)가 257개로 전국의 1.75%에 그치고,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여신 27조원, 수신 31조원으로 전국 비중이 고작 1.77%와 1.50%에 불과함. 경상일보, 2013.12.19.일자 참조

- 신청자격의 까다로움, 담보물의 임의처분 및 양도에 어려움도 존재

\* 대한상의 조사결과,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48.1%가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를 꼽았으며, '타대출 이용 등 필요없어서(26.4%)', '대출한도 등 조건이 좋지않아서(11.6%)' 등의 순으로 응답

〈표13〉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구 분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금융기관의 취급기피	대출한도 등 조건이 좋지않아서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타대출 이용 등 필요없어서
전체 (%)	48.1	4.6	11.6	9.3	26.4

### Ⅲ. 주요국 중소기업 금융 현황

#### 1. 독일

□ 독일의 경우 내부자금과 은행대출 중심의 균형있는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sup>7)</sup>

○ 독일 중소기업은 주로 내부자금(47.8%)과 은행대출(31%)로 자금을 조달

- 정책자금 비중도 낮지않은 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
- 외부자금조달에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비중이 높은 간접금융 중심

\* 금융시장 구조(2011년) : 간접금융(48.2%), 직접금융(51.8%)

〈표14〉 독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추이(금액기준)

(단위 : %)

	내부자금	은행대출	정책자금	기타
2005	51.1	27.5	11.1	10.3
2006	43.1	30.9	14.9	11.1
2007	43.7	36.1	11.8	8.4
2008	48.0	32.0	11.8	8.0
2009	50.5	30.5	13.4	5.7
2010	47.8	31.0	13.0	8.1

출처 : 田中, 독일 KfW의 자금조달 패널조사(2011), 2013

○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동안 일반은행이 중소기업의 장기대출을 축소했지만 지역금융기관은 오히려 확대하여 독일 경제 성장에 기여

- 2007년~2012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5년 초과)이 대형은행(39.9%)과 주립은행(22.3%)에서 감소했지만, 저축은행(62.0%), 신탁은행(71.9%)은 증가<sup>8)</sup>

7) 田中信世, “ドイツの中小企業～競争力維持に専門労働力の確保が不可欠”, 国際貿易投資研究所, 2013.9 참고

8) 서경란,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모델수립을 위한 해외 관계금융 사례연구, 중소기업연구, 2014.9 참고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간접대출, 연방 및 주정부 보증은행에 의한 재보증 지원, 주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
- 독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KfW)에 의한 간접대출(On-lending 방식)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 담당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과 노하우를 활용
    -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상업은행, 저축은행 등)에 자금대출 신청을 하면 중개금융기관이 재건은행(KfW)에서 저리로 대출받아 중소기업에 재대출
- 정책자금은 민간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활용한 간접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KfW의 정책자금 간접대출은 민간은행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장기설비자금을 주로 지원
- 신용보증은 각 주마다 설치된 민간 보증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도 함
  -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민간보증은행 보증액의 80%를 무상으로 재보증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 장기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발달
- 독일은 주거은행인 하우스뱅크(Hausbank)를 통해 관계형 금융의 토대를 이룸
  - 주거은행은 거래기업의 주식 보유 및 이사 파견을 통해 기업과

장기간 협력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거래은행은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및 비재무 정보 등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장기대출 위주의 여신지원,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독일 마크슈타트협동조합은행의 관계형 금융 사례

- 마크슈타트협동조합은행은 영업과 심사 구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출 담당자가 RM(Relationship Manager)과 심사역의 기능을 담당
    - 거래기업과 은행 대출 담당자는 10년 이상 또는 퇴직까지 유지
    - 거래기업 담당자 교체가 드물고 대출의사 결정 관계자들이 거래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개별은행 차원 또는 다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출처 : 조병선(2014.6),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관계형금융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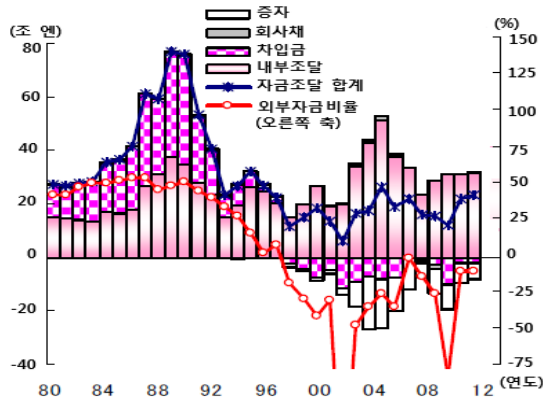
## 2. 일본

- 일본에서는 내부자금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 은행대출은 감소세<sup>9)</sup>
-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기준으로 60%에 근접
- 한편 은행대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 이후 감소폭이 커짐.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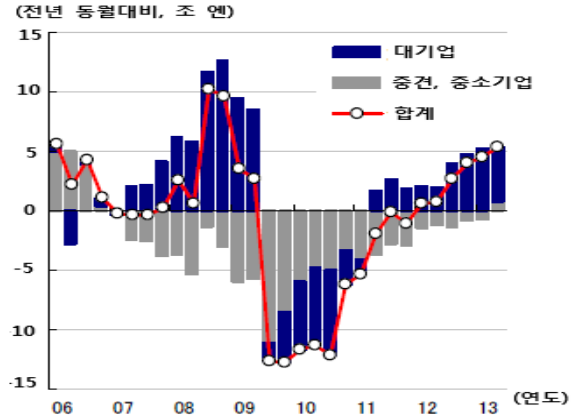
9) “日本企業のマネーフローに変化はみられるか”, みずほ総合研究所, 2013.12 참고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임<sup>10)</sup>

〈그림7〉 일본 중소기업 자금조달



〈그림8〉 일본 기업대출



주 : 차입금은 은행대출, 내부조달은 내부자금을 의미

출처 : 미즈호종합연구소(2013)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자금대출과 신용보증협회를 통한 신용보증지원으로 구성되며 대출과 보증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
- 공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해 직접대출과 간접대출 형태로 중소기업 지원
  - 대부분 직접대출방식이며 민간금융기관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장기자금을 지원
-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에서 역할 분담 및 중복 지원 배제
  -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설비자금을 위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은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
- 신용보증은 지역별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보험형태로 재보증

10) 筒井 徹, “中小企業の借入構造”, 一般財団法人 商工総合研究所, 2013.03 참고

-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신용보증 손실시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70~80%를 보전
- 일본의 관계형 금융제도를 대표하는 메인뱅크(주거래은행)제도는 기업과 은행간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관행으로 형성
- 메인뱅크제도에서 기업과 은행이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주거래은행은 거래기업에게 자금 외에도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메인뱅크는 주주로서 거래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임원을 파견하여 거래기업의 연성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기반 마련
- 정부는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지역밀착형 금융(관계형 금융)을 정책적으로 추진
- 2003년 '릴레이션십 बैं킹 기능 강화에 관한 실행 프로그램' 발표
  - 금융기관이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지원, 판로 알선·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 보증·담보 대출을 지양하고 자금공급 방법 개발 등
- 2005년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정책을 구체화

〈표15〉 일본 「지역밀착형 금융 강화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1.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한 거래기업 지원	① 사업재생 지원 ② 창업·신사업 지원 ③ 경영개선 지원 ④ 사업승계 지원
2.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기법의 개발	① 부동산 담보, 개인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여신관행 정착 ②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공급 수법 개발
3. 지역정보집적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공헌	① 개별 기업이 아닌 일정 지역의 재생 지원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

출처: 일본 금융청, 地域密着型金融の取組みについての評価と今後の対応について, 2006

○ 지역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 이외 서비스 제공

- 자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활용, 유관기관과의 제휴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본 후고쿠은행의 관계형 금융 사례

- 후고쿠은행은 정부 중소기업지원제도(경제산업성 지역력거점사업)를 활용해 거래중기를 지원하여 기업컨설팅 비용을 최소화
  - 후고쿠은행은 지역력거점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돼 거래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 수급
- 일본에서는 후고쿠은행 이외 많은 지역중소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

\* 출처 : 한국은행 포항본부(2012.6),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우수 사례

□ 일본은 2005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동산담보대출 취급 개시<sup>11)</sup>

○ 동산담보대출 취급 규모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8월말 503억엔에서 2010년 3월말 3000억엔으로 크게 증가

- 매출채권, 자동차, 금속, 천연소재, 곡류, 냉동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담보권 설정 가능
- 통상적인 담보인정 비율은 매출채권 70~90%, 재고자산 25~60%, 기계설비 50% 이하

### 3. 미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정책자금보다는 주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11) 최영주, 외국의 동산담보법 현황 및 동산담보대출 취급현황, 2011.12 참고

-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융자 및 직접투자 방식보다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거나 민간벤처캐피탈회사(SBICs)가 발행하는 사채를 지급보증하여 벤처투자자금 조성을 지원
  - 미국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을 별도로 두지않고 신용보증심사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심사하거나 민간금융기관에 위탁
- 미국은 신용보증을 위주로 지원하므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신용보증이 민간금융기관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만기 7년 이상의 설비자금을 위주로 지원
- 주정부는 각주의 중소기업 상황이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직접대출과 신용보증 등을 지원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 제정(1977년)을 계기로 관계형 금융 활성화
  - 지역은행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대출하도록 의무화<sup>12)</sup>
    - 은행이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관계형 금융이 확산
  - 미국 중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시 관계형 금융을 이용<sup>13)</sup>
    - 관계금융매니저(relationship manager)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정보교환, 모니터링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 수행

12) 조병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관계형금융 도입방안, 2014.6 참고

13) 한국금융연구원,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2013.12 참고

- 관계금융매니저 자신이 대출심사자와 융자여부 판단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연성정보의 이용 및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

□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중소기업의 주요 대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sup>14)</sup>

○ 동산담보대출 취급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1980년말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09년말 4,800억 달러로 크게 증가

-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담보권 설정 가능
- 담보인정비율은 매출채권 70~80%, 재고자산 50% 내외 수준

---

14) 최영주, 외국의 동산담보법 현황 및 동산담보대출 취급현황, 2011 참고

## IV.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 1.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모델로 관계형 금융을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형 금융에 적합

\* 10인 미만 중기 비중 : 한국 92.1%(11년), 일본 79.3%(09년), 미국 61.6%(08년)

-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의 효율성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금융권의 심사역량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대한상의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67.8%가 관계형 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관계형 금융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 금융기관의 시스템 구축 비용, 전담인력 운용의 한계, 신용 리스크 증대,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

□ 단기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에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 관계형 금융은 노동집약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 등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 지역은행 등이 적합

- 올해 정부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9.17) 발표



\* 점포 설치 규제 완화, 대출업체 총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등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향후 상호금융기관, 지역은행 등으로 활성화 될 필요

○ 정책금융기관에서 관계형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기능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자금 이외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갖춘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 장기적으로 관계형 금융을 은행에서 관행으로 정착

○ 주거래은행을 관계형 금융 활성화의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

- 독일과 일본은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해 기업과 은행간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해 관행으로 정착

- 우리나라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

\* 대한상의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4.1%가 주거래은행과 10년 이상 장기거래 중이며, 78.5%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음

○ 은행은 관계형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거래중소기업과 약정을 맺어 관계형 금융 지원

- 은행은 관계형 금융 전담조직을 두고 책임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마련하고 기업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관계형 금융체제를 구축

- 은행은 거래중소기업과 약정을 맺고 장기대출, 자금지원 이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거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대한상의 조사결과(14.9월), 조사대상의 95.3%가 주거래은행에서 자금대출 이외 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

## 2. 정책금융의 기능 효율화

###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강화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원규모를 조정하면서 정책금융 기능 담당

- 그러나 낮은 지원금리수준과 자금용도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sup>15)</sup>에 따라 은행과 중복

- 이로 인해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쏠리고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에서 소외

○ 은행이 지원하는 대상과 중복을 피하고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에 지원을 강화

- 은행별로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비율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지원한 비율을 기준을 우대하여 자금배분

### □ 투융자 복합금융(메자닌 금융) 확대

○ 중소기업은 거의 융자(대출)방식으로 자금 조달

-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특히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

\* 기업(제조업) 부채비율(12년) : 대기업 85.5%, 중소기업 165.6%

\* 기업(제조업) 차입금의존도(12년) : 대기업 21.9%, 중소기업 36.5%

- 독일은 재건은행(KfW)이 메자닌 금융(messanine financing)을 통해 창업초기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출지원<sup>16)</sup>

15) 이기영·조영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5 참고

- \* 메자닌 금융은 무담보, 장기성 대출의 성격을 갖는 후순위대출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
- 우리나라도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 혼합 방식으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중
  - \* 지원규모 : 1500억원(12년) → 1700억원(13년) → 1500억원(14년계획)
  - \* 지원조건 : 저금리로 신용대출 후 만기(5년)에 이익발생시 이익연동이자를 받거나(이익공유형), 전환사채(CB) 인수 후 만기에 주식으로 전환권 부여(성장공유형)
- 기술력을 갖춘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효과가 큰 투융자복합금융을 확대 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중 자금난 해소기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sup>17)</sup>
    - \* 자금난 해소 기여도 : 신성장기반자금 95.7, 투융자복합금융 93.9%<sup>18)</sup>, 긴급경영안정자금 90.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84.6%
    - \* 만족도 : 긴급경영안정자금 92.5%, 투융자복합금융 92.2%, 신성장기반자금 90.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85.5%

### 3. 직접금융의 접근성 제고

#### □ 엔젤투자 활성화

- 벤처 활성화 대책('13.5월) 이후 엔젤투자자수와 엔젤투자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더욱 활성화될 필요

16) 조영삼 외 3인, 온렌딩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 2008.7 참고

17) 중소기업연구원, 2012년 중진공 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3.10 참고

18) 투융자복합금융은 이익공유형대출과 성장공유형대출의 평균

- \* 엔젤투자자수 : 2,610명(12년) → 6,566명('14.8월)
- \* 엔젤투자실적 : 530억원(12년전망) → 600억원('13년전망)
-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수익창출이 어렵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편
- 이처럼 창업초기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우리나라 엔젤 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
- \* 미국은 엔젤투자가 전체 벤처투자규모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 대비 2%에 불과<sup>19)</sup>

#### ○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올해 도입된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 일반엔젤투자자보다 소득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확대
- \* 현재 일반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50%, 소득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 □ 코넥스(KONEX) 시장의 활성화

-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안착되었으나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편
- 2014년 6월말 현재 55개 기업이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은 1.2조원 규모
- \*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설 후 6개월인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331개 기업이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은 7.6조원 규모
- 개인투자자 확대 유도
- 코넥스 시장 참여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3억원)이 높아 거래활성

19) 중소기업청,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5 참고

화에 걸림돌로 작용

- \*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엔젤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면제
-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의 인하
- \*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코넥스시장에 참여가능한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인구의 2.6% 수준일 것으로 추정<sup>20)</sup>

○ 세제지원을 통한 상장 촉진

- 과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도입
- \*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손 발생시 손실준비금에서 상계시킬 수 있음

#### 4. 동산담보대출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시 부실대출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원 면책 강화

○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규모와 금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데다 양도가 쉬워 담보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이 낮음

- \* (사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담보물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채권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보권 소멸<sup>21)</sup>

○ 예기치 않는 담보가치의 하락 등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법규 준수·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20) 황세윤, 코넥스(KONEX)시장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14.7 참고

21) 금융위원회, 담보권 강화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및 취급동향, 2014.8 참고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직원 제재를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내부에서 부실대출 면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사매뉴얼 정비·보급

#### □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대출에서 소외

- 담보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

##### ○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이 동산담보대출시 보증 지원

- 일본에서는 2007년 신용보증 대상을 동산담보융자로 확대하여 융자금액의 80%까지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유동자산 담보융자 보증제도’를 도입<sup>22)</sup>

####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동산담보대출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산담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

- 대한상의 조사결과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48.1%가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
- 또한 부동산 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산담보에 대해 금융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인 경향

##### ○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홍보 및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 중소기업시책 설명회,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동산담보대출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제고

22) 김동환, 일본동산담보융자의 현황 및 과제(II), 2013.4 참고